

렘지어 교수의 위안부 관련 논문에 대해

MCSK가 MWC, MCUSA, MMN, MCC, Mennonite Congregation of Boston에 묻습니다.

이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한국의 MCSK에서 전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수가 한국은 물론 아시아와 일본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왜곡된 학술논문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 뉴스가 연일 방송에 나오고 토론회도 열리면서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또 누군가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구나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존경받는 메노나이트 선교사의 아들이며, 미국 메노나이트 교회의 멤버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혼란스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한국에는 4곳의 메노나이트 교회와 2개의 아나뱃티스트 단체는 평화와 화해를 공동으로 신앙고백하며 70년 동안 휴전상태로 남아있는 분단 국가에서 제자의 삶을 따르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이에 렘지어 교수를 메노나이트 형제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한국의 메노나이트 교회 멤버들은 한국 역사에 대한 렘지어 교수의 태도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 귀 단체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며, 교회와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1. 렘지어 교수의 주장과 그에 대한 학자들의 반박, 논문 게재의 취소 등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자료가 있으므로,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관계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의 고통과 분노를 북미의 메노나이트 형제들이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므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rijs.fas.harvard.edu/news/statement-reischauer-institute-japanese-studies-0>

2. 우리가 대화를 요청하는 것은 렘지어 교수와 북미메노나이트를 형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형제가 속한 교회의 장로들이 권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형제의 잘못된 인식이 있고 그것이 피해자(국)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범국가로서 아시안 전역을 고통으로 몰고 갔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라면 분명하게 이에 대해 대화하고 필요한 액션이 취해지기를 원합니다.
3. 우리는 북미에서 일본을 원폭의 피해 국가로 생각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일본 메노나이트 교회와 교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원폭이라는 엄청난 폭력의 희생자인 동시에, 한국을 36년간 식민지배한 것을 필두로 동북 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다년간 수탈하고 전쟁의 대상 및 도구로 사용한 엄청난 전범국가이기도 합니다. 종전 후 지난 70년 간 일본이 자행한 전쟁 범죄들을 두고 수많은 비난, 사과, 그리고 부인이 있었습니다. 일본 메노나이트 형제들이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번 렘지어 교수의 논문과 그의 여러 인터뷰 기사들을 통해서, 그가 일본에서 선교

사의 자녀로 살면서 어떻게 아시아의 피해 국가들이 느끼는 것과는 다른 침략자의 역사관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매우 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램지어 교수 주장하는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로, 간도 대지진 때 학살당한 조선인들을 범죄자들로 부르는 것 등 램지어 교수의 여러 논문 및 발언으로 미루어볼 때, 이번 한번의 실수가 아니라, 일본이 아시아를 식민지배하는 기간에 벌어진 수많은 형태의 폭력을 합리화하는 역사관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4. 아시아 전역을 침략한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는 지금까지도 아시아 각국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그때의 일본군 위안부,(강제 노역, 였던 당사자들이 여전히 살아서 증언하고 있으며, 그들은 전쟁 희생의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일본 정부는 실제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한일 간은 물론 일본과 아시아 각국 간의 역사를 왜곡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그가 오랜 기간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의 후원을 받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램지어 교수의 공식 직함이 미쓰비시 교수이며, 미쓰비시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정부를 위해 전투기와 무기를 제조했고 여러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MCSK는 북미 메노나이트교회의 형제자매가 침략자의 입장에서 기록된 사관을 가지고, 고통받은 피해자를 이중으로 가해하는 일을 하는 램지어 교수의 주장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와 대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아시아 국가는 침략국 일본이 남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논문에 대해서 2천여명의 연구자가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문(<http://chwe.net/irle/letter>)에 서명하는 등 그 문제점이 규명되고 있지만, 이러한 일은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고, 그런 폭력이 북미의 아시아인들을 포함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본과 한국 역사학자 알레시스 더든에 표현을 빌리자면 과거의 잔혹한 행위를 공부하는 이유는 동일한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함이지 지금의 목적을 위해 역사를 무기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평양 너머에서 미국인, 그것도 메노나이트 형제의 일로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의 현명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대화에 기꺼이 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2021. 4. 6

한국메노나이트교회연합회 대표 배용하
Mennonite Church South Korea
General Secretary Yongha Bae

